

釋迦塔과 多寶塔의 명칭적인 타당성 검토

염 중 섭*

(동국대학교 철학과 강사)

주제어 : 多寶塔, 釋迦塔, 華嚴思想, 法華思想, 「見寶塔品」, 多寶如來, 靈山淨土

1. 서론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과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별개의 논리적 층차를 가지는 부분이다. 석가탑과 다보탑과 같은 경우는 불교를 떠나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관점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명칭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석가탑과 다보탑 및 불국사와 관련된 연구들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과 관련된 타당성 부분이 일부라도 계속해서 포함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명칭의 기록이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라는 18C자료에서 살펴지고 있는데 반하여, 석가탑의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기록물에는 석가탑이 ‘無垢淨光塔’이나 ‘西石塔’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裴珍達과 같은 경우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관련하여」라고 하

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다.

본고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적인 타당성을 분명히 하여 명칭에서 파생하는 혼란을 일소하고, 이후 불국사 관련 연구들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기술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본고의 문제의식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아사달 설화의 내포의미와 다보탑과 석가탑의 건축적 특수성에 반영된 「見寶塔品」과의 형태적인 연관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가 새로이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建塔과 관련된 전승 및 형태적인 특수성에 대한 고찰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보다 분명한 의미파악을 통한 명칭적인 타당성을 시사 받아 보게 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

* 교신저자, 이메일: kumarajiva@hanmail.net

람배치와 사상배경을 통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불국사가 국찰로써 불교적인 의례성을 높게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적인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화엄사상적인 입각점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검토개진은 명칭적인 타당성을 논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접근들을 통해서 필자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이 과연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적인 변증이 모두가 「견보탑품」과만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견보탑품」과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자료들에서 제시된 부분들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증은 최소화해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견보탑품」에만 의존하는 변증은 타당성에 대한 고찰이 아닌 결과로서의 답을 상정하고 있는 변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의 검토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게 확보하고 있는 사찰인 불국사[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無影塔의 전설’과 1966년부터 발행되는 ‘10원권의 다보탑 도안 사용’ 및 경주라는 한때 수학여행 등의 필수 코스였던 ‘천년고도의 상징’으로 불국사와 석굴암(石佛寺)이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에 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각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이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에 수록되어 있지만,¹⁾ 이들 자료가 불국사의 성립시점과 너무 먼 후대 자료라는 점이다. 『佛國寺史蹟』에는 저자가 “慶歷 6년 丙戌(1046년) 2월에 國尊 曹溪宗 圓鏡冲照 大禪師 一然 撰”이라고 되어 있고, 繼天이 이를 1708년에 改刊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내용 등에 입각해 볼 때, 繼天이 一然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佛國寺古今創記』와 같은 경우도 活庵東隱에 의해 1740년에 작성된 기록이다. 즉, 1700년대 이전의 기록에 입각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을 우리는 인지해 볼 수가 없는 것이다.²⁾

1)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事蹟」,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20쪽, 1983, “敬造多寶無影兩塔而一以無影塔爲釋迦如來常住說法之寶所一以多寶塔爲多寶如來常住證明之刹幢”; 『佛國寺古今創記』, 47쪽, “東多寶塔西釋迦塔一名無影塔”

2) 불국사 관련 18C 이전의 자료로는 崔致遠에 의한 5종 문헌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崔致遠 撰의 불국사 관련 5종 문헌의 수록진적을 金相鉉의 연구(金相鉉, 「Ⅲ.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新羅의 思想과 文化』, 一志社, 서울, 454~458쪽, 2003)를 통해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 『開宗文類』(1090년경) | 『東文選』(1478년) | 『佛國寺史蹟』(1708년) | 『佛國寺古今創記』(1740년) |
|--------------|----------------|--------------|----------------|------------------|
| 毘盧佛并二菩薩像讚 并序 | | | ○ | ○ |
| 阿彌陀佛像讚 并序 | ○ | | ○ | ○ |
| 釋迦如來像幡讚 并序 | | ○ | ○ | ○ |
| 結華嚴經社會願文 | ○ | | | ○ |
| 追福施穀願文 | | | | ○ |

이들 기록들은 내용적으로도 前佛時代의 七處伽藍址와 병기하여 불국사[妙吉坊]를 등장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 阿道和尚의 초창과 法興왕의 증창³⁾ 및 법흥왕의 모후인 迎帝夫人에 의한 초창⁴⁾ 등의 비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반감시킨다. 또한 사원규모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寺址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2천여 간의 건물과 명칭들이 열거되어 있어⁵⁾ 자료적인 신뢰성을 많이 떨어트리고 있다. 이는 후대에 불국사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관련문헌들과 구전들을 집취하면서 파생된 오류로 이해된다. 즉, 의도적인 과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⁶⁾ 이러한 기록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둘째, 1966년 도굴의 위협에 의해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발견된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1024년)>와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년)>가 발견되게 되는데,⁷⁾ 이때 석가탑이 ‘無垢淨光塔’이나 ‘西石塔’으로 명칭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다보탑과 같은 경우는 1925년 일제시대 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⁸⁾ 그런데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의 기록에 앞서는 고려시대의 자료에서 석가탑의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석가탑이 西石塔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로 하여금 석가탑과 다보탑이 고유 명사로 칭해지지 않고 쌍탑의 일반론에 입각해서 東(石)塔과 西(石)塔으로 불리웠을 개연성을 상정케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불국사를 화엄밀교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신현숙과 배진달 등은 이러한 유물을 근거로 쌍탑을 화엄사상의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개진하고 있다.⁹⁾ 이로 인하여 無影塔은 法身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장과,¹⁰⁾ 다보탑과 석가탑은 본래의 명칭이 아니며 이는 東塔과 西塔일 뿐으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은 18C에 파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기에 이른다.¹¹⁾ 이는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년)>에 입각하는 것으로 동시에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불국사에 대한 화엄사상으로서의 이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李文基, 「崔致遠 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新羅文化』, 제26집, 216쪽, 2005의 <표1> 崔致遠 撰 佛國寺 關聯資料의 收錄文獻과 目錄도 참고가 된다.

3)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史蹟」,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10~16쪽, 1983

4)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3~44쪽, 1983

5) 위의 책, 47~50쪽

6)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그 創建과 사상적 배경」, 佛敎研究, 제2집, 27쪽, 1986

7) 釋迦塔 내에서 발견된 墨書紙片과 관련해서는 2008년 6월 20일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관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韓國佛敎歷史文化紀念館 國際會議場에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때의 논문들이 보완·정리되어 佛敎文化財研究所,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財]佛敎文化財研究所, 2009로 간행되었다.

8) 박경식, 『韓國의 石塔』, 학연문화사, 서울, 350쪽, 2008

9) 申賢淑은 多寶塔의 명칭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화엄사상의 안에서 일원화시켜 보려고 하는 반면, 裴珍達은 多寶塔 자체의 명칭을 부정하고 이를 東塔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2」, 傳統文化, 제142호, 104~111쪽, 1984; 裴珍達,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 - 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相關하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交手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서울, 125~133쪽, 2007

10) 申賢淑, 「佛國寺의 伽藍配置와 佛國土觀」, 『佛敎思想』, 제28호, 202쪽, 1986, “이 탑은 부처님 法身을 塔나낸 것으로서 佛은 無形이며, 法體는 無像이므로 無影塔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것이다.”

11) 裴珍達,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 - 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相關하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서울, 125쪽, 2007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화엄사상적인 관점에서 불국사를 보다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와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역시 불국사 창건 당시와 관련된 기록이 아닌 고려시대 불국사의 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문제가 있다. 이 기록물들은 불국사가 法相宗에 속해 있을 때 捧納된 것으로 이는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瑜伽業佛國寺”라는 명칭을 통해서 분명해진다.¹²⁾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칭은 범상종의 관점에서 파생한 측면으로도 인식될 개연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국사가 범상종에 속해 있던 고려의 특정시기에 석가탑이 무구정광탑이나 서석탑으로 불리웠다는 내용을 확보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곧장 석가탑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주장을 전개하기에는 자칫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석가·다보탑의 명칭과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점은, 각기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는 동시에 각기 각각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

이 중 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이 후대의 것으로 과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는 비록 18C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 이전의 前說에 의거한 것으로 이전시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須彌梵鐘閣이나 靑雲橋와 白雲橋, 蓮華橋와 七寶橋와 같은 명칭¹³⁾은 이 기록이 단순히 18C

에 성립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 유독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고려시대의 자료를 근거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내용 중 자신의 논리적인 관점과 다른 특정 부분만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후자와 같은 경우는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의 찬술연대 보다 빠른 고려시대의 석가탑 명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과연 前시대를 계승하는 일반화된 명칭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범상종이나 특수한 시대와 관련된 명칭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국사는 창건 당시 華嚴佛國寺와 같은 全稱¹⁴⁾에서 화엄사상적인 관점과 높은 관계성을 가진 國刹¹⁵⁾이다. 그러므로 고

(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7~48쪽, 1983, “紫霞門 六間 靑雲橋 白雲橋.” “須彌梵鐘閣 三間.” “極樂殿 東長廊 西長廊 前後行廊 光明臺 奉壚臺 安養門 七寶橋 蓮華橋 九品蓮池”

14)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는 각각 그 全稱이 『新羅國東吐含山華嚴宗佛國寺事蹟』과 『大華嚴宗佛國寺古今歷代諸賢繼創記』에 다를 아니다. 또한 『불국사고금창기』에는 사찰의 명칭에 관해서 “或稱華嚴佛國寺 或稱華嚴法流寺(43쪽)”라고 기록되어 있어 불국사가 창건 당시부터 화엄사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불국사사적』과 『불국사고금창기』는 모두 자료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곧장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불국사사적』과 『불국사고금창기』에도 附記되어 있는 동시에 1090년경의 기록인 『圓宗文類』(『大正藏』58, 567b·c)에도 수록되어 있는 최치원의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된다.

15) 불국사에 대해서는 일부 願刹說이 제기되기도(成樂甫, 「歸納推理에 의한 石窟庵과 佛國寺 관련 문헌사료의 연구」, 東岳美術史學, 제2호, 2001)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역시 國刹說이 주류가 된다고 하겠다.

추상훈, 「佛國寺 九品蓮池의 影池의 특징과 煙霧效果에 관한 研究」, 弘益大 碩士學位論文, 서울, 11~12쪽, 1997; 姜友邦,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제66호, 13~14쪽, 2001;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 40

12) 최연식,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財]佛敎文化財研究所, 서울, 66쪽, 2009

13)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려조의 범상종적인 관점을 가지고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칭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부정될 수 있는 구조는, 창건 당시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타당성 모색은 필연적으로 유물과 불교사상적인 관점에서의 2차적인 접근에 의한 해법을 요구 받게 되는 것이다.

3. 아사달 설화와 형태적인 타당성

3-1. 아사달 설화의 상징성과 다보탑

석가탑은 정형석탑인데 반해 다보탑은 유래를 찾기 힘든 특이한 구조의 이형석탑이다. 통일신라시기부터 등장하는 쌍탑 구조에 있어서 좌우가 철저한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유일하다. 물론 남산리 쌍탑[양피사지 쌍탑, 보물 제124호]에서와 같이 비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국사에서 보이는 과격적인 비대칭을 통한 대칭의 의미구현은 그 어떤 쌍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의 현시라는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일반적으로 쌍탑이 동·서탑으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특징적인 고유명사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고유명사의 확보와 관련되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다보탑이다. 석가탑이 한국석탑의 궤범을 확립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형성은 도리어 고유명사의 파생이라는 측면과는 연결점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석가탑이 석가탑이라는 명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다보탑에 의한 비중이 크다. 그러므로 탑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는 1차적으로 다보탑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 수가 있겠다.

다보탑의 특이한 표현은 주지하디시피, 아사달에 의한 것이다. 아사달에 관해서 『佛國寺古今創記』에는 唐人이라고 수록되어 있지만,¹⁶⁾ 이는 너무나도 공교로운 솜씨에서 기인하는 상징적인 오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아사달과 아사녀(여동생이면서 부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¹⁸⁾라는 이름, 그리고 無影塔이나 影池 등과 관련된 설화에 입각해 볼 때, 백제인 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사달의 설화는 폐망한 백제의 장인이 신라의 불국건설을 위해서 예술혼을 불태우고 사멸한 것이 되게 된다.

황룡사9층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버지가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고, 건탑을 중단하려고 하자 老僧과 壯士의 감응이 있어 탑을 완성했다는 설화는¹⁹⁾ 백제의 폐망을 암시하는, 백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설화이다. 그러나 아사달과 같은 경우는 아내인 아사녀까지 동반되어 더욱 더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

16)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7쪽, 1983, “謠傳創寺時匠工自唐來人”

17) 황수영, 『佛國寺와 石窟庵』, 世宗大王記念事業會, 서울, 108~109쪽, 2000

18)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7쪽, 1983, “有一妹名阿斯女”

19) 『三國遺事』3, 「興法第三(皇龍寺九層塔)」(『大正藏』49, 990c~991a), “初立刹柱之日。匠夢本國百濟滅亡之狀。匠乃心疑停手。忽大地震動。晦冥之中有一老僧一壯士。自金殿門出。乃立其柱。僧與壯士皆隱不現。匠於是改悔。畢成。”

져 보면, 이는 위대한 예술품에 따르는 고대의 人身供犧의 풍습과 관련된 숭고미의 강조라고도 할 수가 있어 주목된다. 마치 聖德大王神種이 ‘鐘’이라는 글자의 破字[金+童:아이가 쇠와 결합된 형상이 ‘鐘’字이다]에 의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포함된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공히 일반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예술품의 거대한 Aura²⁰⁾에 대한 전설적 자리매김이라는, 범부들의 최고 위대한 찬사라고 하겠다.

그런데 아사달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아사달이 단군의 도읍과 관련하여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이는 아사달이 단지 백제의 석공만이 아닌 고구려와 백제라는 단군을 계승한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개연성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신라는 중앙아시아의 황금문명과 관련된 유목민족²²⁾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와 관련된 동일계열인 것과는 민족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불국사의 완성과 아사달의 사멸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단순히 국토의 문제를 넘어서 이 시기에 와서는 문화와 사회적인 보다 완전한 완성을 이룩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²³⁾ 즉, 신라의 불국건설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 속에 완전히 편입되어 일체화가 되게 된다

20) 유형식, 「벤야민: 藝術과 技術」, 『人物로 본 獨逸美學』, 미크로, 서울, 403~417쪽, 2003

21) 『三國遺事』 1, 「紀異卷第一(古朝鮮[王儉朝鮮])」 (『大正藏』 49, 961c~962a), “魏書云。乃住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亦云白岳。在白州地。或云在開城東。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 李承休, 김경수 譯註, 『帝王韻紀』, 亦樂, 서울, 35~136쪽, 1999, “入阿斯達山爲神.” “本紀曰, ...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

22) 정형진, 『실크로드를 달려 온 新羅王族』, 일빛, 서울, 97~184쪽, 1990

23) 廉仲燮, [2. 국토통일 이후의 과제],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 宗教研究, 제49집, 177~180쪽, 2007

는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아사달의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三韓一統의 완전한 일통을 인지해 볼 수가 있으며, 이는 화엄불국사라는 불국사의 사명 및 석가·다보라는 靈山淨土의 구현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주목된다.

석가·다보의 명칭 부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경우 도량 전체가 영산정토가 된다는 것이다. 영산정토는 『법화경』의 설법이라는 시점을 통해서 五濁惡世인 娑婆世界가 그 자체로 가장 이상적이고 청정한 정토의 佛世界가 된다는 것이다.²⁴⁾ 이렇게 되면, 아사달로 대변되는 망국의 비극은 더 이상 비극일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영산정토에서는 온갖 차별상을 내포하고 있는 사바가 곧 그 자체로 완벽한 정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사달의 사멸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보탑의 존재가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다보탑이 다보라는 명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사달의 설화는 불국사라는 ‘佛國’ 건설에, 백제인의 비극적 죽음만이 서려있는 것으로 종결되고 만다. 그러나 다보탑이 다보라는 명칭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정토의 이상경계를 현시하고 있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통일신라 중 문화적 정점기라고 할 수 있는 景德王 때에 불국사라는 불교를 통한 국론통일의 산물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사달의 비극이 널리 전승되는 것을 좌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영산정토를 통한 ‘娑婆即淨土’ 관점을 통해 삼국통일과

24) 坪井俊映, 韓普光 譯, 『淨土教概論』, 弘法院, 서울, 33~35쪽, 1996 ;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 (『大正藏』 9, 33a~b) ;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 (『大正藏』 9, 103c) ;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 (『大正藏』 9, 167c) ;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p. 46~48, 2009

관련된 모든 비극을 종결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이 완료되고 약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신라는 사회적 안정과 강한 문화적인 자신감 속에서 ‘불국’이라는 차별을 지양한 진정한 통일을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보탑이라는 명칭의 존재는 통일신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버지로 상징되는 망국의 유민들 입장에서 필연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된다.

3-2. 다보탑과 석가탑의 형태적인 특징과 「見寶塔品」

다보탑의 형태적인 특징은 매우 독특하다. 그러나 붓다가 당신보다 먼저 입멸한 수제자인 舍利弗과 目犍連²⁵⁾을 위한 建塔을 지시할 때, 4각과 원형, 그리고 8각을 말씀하고 계시므로²⁶⁾ 이 역시 인도불교적 내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존귀한 상징성을 가지는 중층건물에 불상과 사리가 수장되면서 불탑은 중국의 다층건물의 양상을 수용하게 된다.²⁷⁾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보탑은 인도와

중국의 탑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이상적인 결과의 도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를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은 물론 아버지가 주도했다고 하겠다.

『법화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보탑은 현실적인 탑이라기 보다는 多寶如來의 全身舍利를 수장하고 있는 사원형태의 건축으로,²⁸⁾ 이는 過去佛인 보신의 이상성을 상징한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중층의 장엄들²⁹⁾ 아버지는 중층의 난간³⁰⁾을 통한 정제미로 승화한다. 즉, 상징적 재해석을 통해 다보탑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보탑이 전무후무한 구성방식을 통해서 재현되는 계기가 된다.

다보탑이 인도와 중국적인 탑의 내원을 확보하는 것은 多寶佛 역시 붓다로써 인간계 이외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³¹⁾ 그러

28) 이는 『正法華經』에서 多寶塔을 ‘七寶寺’로 칭하는 것 등을 통해 파악해 볼 수가 있다.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3c ~ 104a)

29)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2b);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2b);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7a);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 34, 2009

30) 계단과 관련해서도 난간이 있었음이 계단 입구 돌기둥의 중간정도 위치에 파여 있는 홈을 통해서 확인된다.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서울, 58쪽, 2003



<사진1> 다보탑 입구 기둥의 홈

31) 『阿毘達磨俱舍論』 11, 「分別世品第三之四」(『大正藏』 29, 057c~058a), “南瞻部洲北廣南陝。三邊量等。其相如車。南邊唯廣三踰繕那半。三邊各有二千踰繕那。唯此洲中有金剛座。上窮地際下據金輪。一切菩薩將登正覺。皆坐此座上起金剛喻定。以無餘依及餘處所有堅固力能持此故。”; 『佛本行集經』 7, 「俯降王宮品第五」(『大正藏』 3, 682c), “猶如往昔毘婆尸佛尸棄如來。毘舍

25) 『阿毘達磨發智論』 19, 「見蘊第八中念住納息第一」(『大正藏』 26, 1023c), “雙賢弟子。”

26) 『四分律』 52, 「雜犍度之二」(『大正藏』 22, 956b-c), “時諸比丘於寺內聚集整石材木。彼畏慎不敢背負移徙白佛。佛言聽寺內背負。時舍利弗目連般涅槃已。有檀越作如是言。若世尊聽我等爲其起塔者我當作。諸比丘白佛。佛言聽作。彼不知云何作。佛言。四方作若圓若八角作。”

이 외에도 迦葉佛 塔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聲聞塔과 佛塔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摩訶僧祇律』 33, 「明雜誦跋渠法之十一」(『大正藏』 22, 497c), “爾時世尊自起迦葉佛塔。下基四方周匝欄楯。圓起二重方牙四出。上施槃蓋長表輪相。佛言。作塔法應如是。”

27) 金聖雨, 「東아시아 佛寺의 初期 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3권, 3호, 통권11호, 108~110쪽, 1987; 廉仲燮, 「伽藍配置의 來源과 中國적 전개양상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69호, 56쪽, 2010

나 다보탑은 동시에 과거불의 보신적인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지금의 인간계와는 다른 관점이引入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를 잘 승화시켜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2> 다보탑 기단의 계단 부분

석가여래는 다보여래를 통해서 보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다보탑의 半分座를 통해서 분명해진다.³²⁾ 왜냐하면, 반분좌라는 것은 위덕이 상응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반분좌의 경전적인 기록과 관련하여 다보탑에서 주의되는 것이 계단이다. 아무래도 반분좌를 위해서는 진입과 관련된

浮佛迦羅迦孫歇佛。迦那迦牟尼佛。迦葉如來。彼等諸佛。皆從此去。”

32) 이와 같은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帝釋天과 轉輪聖王의 반분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中阿含經』 11, 「(六〇)王相應品四洲經第三(初一日誦)」(『大正藏』 1, 495b), “阿難。彼頂生王即到三十三天。彼頂生王到三十三天已。即入法堂。於是。天帝釋便與頂生王半座令坐。彼頂生王即坐天帝釋半座。於是。頂生王及天帝釋都無差別。光光無異。色色無異。形形無異。威儀禮節及其衣服亦無有異。唯眼胸異。”; 『增壹阿含經』 8, 「安般品之二-六」(『大正藏』 2, 584b), “爾時。阿難。頂生聖王即共釋提桓因一處坐。二人共坐。不可分別。顏貌舉動。言語聲響。一而不異。”

이 외에도 반분좌와 관련해서는 붓다와 대가섭의 多子塔前半分座가 있지만, 이는 대가섭의 頭陀行에 의한 청정성을 북돋아 주려는 것으로, 위덕의 상응을 의미하는 것과는 관점이 다른 측면이라고 하겠다.

33)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3c);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4a);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8a);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p. 50~52, 2009

출입의 상징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석가모니는 계단을 통해서 반분좌에 이르지 않는다고 있다.³⁴⁾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은 거대한 사원식의 탑이라는 측면과, 이를 보는 중생들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석공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보탑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진3> 다보탑 상층부의 개화된 연화의 표현

또한 반분좌의 장소는 붓다의 의거처로 다보탑 중에서도 핵심이 된다. 이를 다보탑에서 개화된 연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보탑은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상징적인 미감으로 간결하게 잘 처리해 내고 있다고 하겠다. 법화사상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다보탑과 관련된 구조적인 타당성에 대한 불교의 명확한 인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다보탑의 명칭적 타당성을 다보탑이라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치 연화교에 연꽃잎이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연교에 대한

34) 『法華經』의 3譯本에는 공히 다보여래의 청좌 이후 석가여래와의 병좌가 기술되어 있어 그 중간과정을 살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석가여래가 다보탑의 문을 여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다보탑이 사원형의 거대한 탑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접근해서 문을 연다는 설정은, 기단과 관련되어 계단이 설치되어도 건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진4> 연화교의 연꽃잎에 대한 묘사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다.

석가탑과 다보탑 중에 일견 주목되는 것은 다보탑이다. 그러나 『법화경』에 입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다보여래가 아니라 석가여래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작금의 『법화경』 설법의 주체는 석가여래이며, 다보여래는 이의 常住證明의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화경』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는 석가여래이며, 석가여래에 의해서 『법화경』이 설법됨으로 인해 사바세계는 비로소 영산정토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보탑의 형태적인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다보탑의 명칭적인 타당성을 확보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동시에 석가탑의 명칭적인 타당성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나 다보탑만을 통해서 두 탑의 명칭적 합의에 온전히 도달했다고 하는 데는 다소 미진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2차적인 관점에서 석가탑의 형태와 관련된 경전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다. 석가탑과 관련된 2차적인 접근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8方金剛座’라고 하는 ‘8方蓮花座’이다.

석가탑의 塔區石은 석가탑이라는 정형성의 완성을 넘어서는 이형성이다. 이와 같은 형식



<사진5> 석가탑의 8方金剛座

의 탑구석은 유독 석가탑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이 탑의 분석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탑구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석가탑의 정형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통일신라기의 석탑과 다른 차이점을 토출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화경』과 관련하여 이 탑이 석가탑이라는 고유명사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은 이러한 탑구석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석가탑의 탑구석에 대한 8방금강좌라는 명칭은 『불국사고금강기』를 통해서 확인된다.³⁵⁾ 그러나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화경』과 연관되어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할 때, 천상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설과, 8방금강좌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八部衆(八部菩薩)의 자리라는 설이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는 공히 타당성이 약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와 같은 경우는, 꽃비라는 것이 장엄과 종교적인 신비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연꽃이 개화한 연화관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화된 연꽃은 불교미술에 있어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장엄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미술의 논리구조에 있어 난맥상을 수반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와 같은 경우, 八部衆

35)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7쪽, 1983

36)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서울, 101쪽, 2003

을 모셨다면 여기에서 8방금강좌는 八部神衆이나 공양보살의 좌대라는 의미가 된다.³⁷⁾ 그런데 八部神衆 즉 天龍八部는 호법신에 불과한데, 이를 연화좌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불교미술에 있어서 蓮花座와 荷葉座, 그리고 岩座와 生靈座 등의 구분은 명확하다.³⁸⁾ 그런데 이 경우에만 천룡팔부를 연화좌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공양보살의 좌대라고 보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전례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경전적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측면들은 『법화경』 내용과의 일치점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식은 8방금강좌라는 명칭에 입각한 불교적인 관점이 부족한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8방금강좌의 ‘金剛’이란, 「견보탑품」과 연관시켜 이해해 볼 때 금강역사에서와 같은 의미의 금강이 아니라,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菩提道場의 金剛[寶]座³⁹⁾에서의 ‘金剛’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⁴⁰⁾ 즉, 8방금강좌라는 말은 8방에 위치해 있는 正覺의 金剛座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8방금강좌가 공히 연화좌

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부절이 상응한다. 또한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는 석가여래가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시방에 분산되어 있는 化身佛들을 응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화신불들의 존재 장소를 요청하게 되는데,⁴¹⁾ 이곳이 불국사에서는 현상적으로 8방금강좌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겠다.⁴²⁾ 물론 우리나라의 탑은 기단부에 佛身を 배치하지 않고 天龍八部나 12支神과 같은 護法神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보탑품」에 등장하고 있는 화신불과 같은 경우에는 석가여래의 本身인 報身⁴³⁾과는 같은 位階에서 이해될 수만은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화신이라는 특수성과 그럼에도 이 역시도 붓다라는 존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탑의 본체와는 별도로 공간분리를 하고 있는 8방금강좌, 곧 8방연화좌가 설치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탑의 기단과 유리된 연화좌를 통해서 붓다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신과 화신의 위계차이를 현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표현방식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이와 같은 보신과 화신의 위계차이에 의한 공간 분리는 영산회상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주목된다. 영산회상도에는 일반적으로 본존의 주위에 작은 크기로 짝수의 화신불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여기에서도 보신과 화신의 위계차이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37)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上(總論篇)』, 悅話堂, 서울, 127~128쪽, 2010

38) 文明大, 『韓國佛教美術의 형식』, 한·언, 서울, 124쪽, 1997;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서울, 48쪽, 1992

39) 『阿毘達磨大毘婆沙論』 30, 「雜蘊第一中愛敬納息第四之二」(『大正藏』 27, 156a), “由此三千大千世界中瞻部洲。有金剛座。上窮地際。下據金輪。菩薩坐之成正等覺。除此無有堅固依處。”; 『大唐西域記』 8, 「摩揭陀國上」(『大正藏』 51, 915b), “菩提樹垣正中有金剛座。昔賢劫初成與大地俱起。據三千大千世界中。下極金輪上侵地際。金剛所成。周百餘步。賢劫千佛坐之而入金剛定。故曰金剛座焉。證聖道所。”

40)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上(總論篇)』, 悅話堂, 서울, 126~127쪽, 2010

41)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3b);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7c);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 46, 2009

42) 최미순, 「佛國寺 釋迦塔·多寶塔의 構成과 構造 分析 試論」, 『佛敎美術史學』, 제5집, 102~103쪽, 2007

43) 「妙法蓮華經文句」 8, 「釋見寶塔品」(『大正藏』 34, 113a), “釋尊表報佛。”

미술의 장르는 다르지만, 8방금강좌가 화신불의 좌대라는 보다 뚜렷한 인식을 확립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8방금강좌를 『법화경』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영산정토의 현시적인 부분이 더 있다.⁴⁴⁾ 그러나 이는 8방금강좌를 화신불의 연화좌로 표현하게 되면 동시에 수반되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것 보다는 역시 화신불의 연화좌라는 측면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는 8방금강좌라는 ‘좌대’라는 의미와도 보다 더 일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8방금강좌를 화신불의 연화좌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8방금강좌라는 석가탑에서만 나타나 보이는 특이한 탑구석에 대한 경전의 의거한 의례성을 확립해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유물적인 타당성을 기초로 ‘1차적인 다보탑의 유물적인 변증’에 상응하는 ‘2차적인 석가탑의 유물적인 변증’을 확보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단편적인 것만으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적인 변증을 명확히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과 경전의 양방면에 입각한 설명은 석가탑과 다보탑에서 표현되고 있는 특수성들에 대한 타당한 해법이 됨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이 단순히 18C의 소산이 아닌 건탑 당시의 경전적인 의도표현과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을 상정케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고유명사에 의한 명칭부여는 후대의 기록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탑의 양식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변증가능한 면이 존재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명칭 기록이 단순히 후대의 인식에만 기초된 것이 아닌 前說에 입각한 기록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하겠다.

또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18C 이전에도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다보탑 유물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다보탑의 영향을 받아 파생한 다른 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일본에는 현재 多寶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탑이 69기나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수로 인하여 양식에 있어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 石山寺다보탑(1194년)이나 金剛三昧院 다보탑(1223년) 등은 佛國寺 多寶塔을 양식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⁴⁵⁾ 이러한 佛國寺 多寶塔의 영향을 일본학자들은 8 ~ 9C경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⁴⁶⁾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이 단순히 18C에 파생한 것이 아닌 그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前說에 입각한 것이라는 관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겠다. 즉,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우리는 유물적인 특수성과 경전과의 의례성, 그리고 일본의 다보탑 양식의 영향 등에 기초하여 18C의 명칭 기록이 前說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45)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上(總論篇)』, 悅話堂, 서울, 143~144쪽, 2010

46) 石田茂作, 『佛敎考古學論考4(佛塔篇)』, 思文閣出版, 京都, pp. 8~13, 1978; 대구MBC, 『多寶塔』, 이른아침, 서울, 96~99쪽, 2004; 金秀炫, 「佛國寺 多寶塔造成의 佛敎思想的 意義」, 東國大 碩士學位論文, 서울, 27쪽, 1998

44)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3b);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3b);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7c);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p. 46~48, 2009

4. 불국사 가람배치와 사상배경적인 타당성

4-1. 화엄사상과 석가·다보 쌍탑

불국사의 전칭이 화엄불국사라는 것은 華嚴宗(業)⁴⁷⁾과 불국사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三國遺事』의 「大城孝二世父母」條에는 불국사의 초대주지로 義湘의 제3세 浮石嫡孫으로 추정되는⁴⁸⁾ 神琳이 기록되어 있다.⁴⁹⁾ 이 외에도 『十句章圓通記』 卷下에는 金大正(金大城과 동일 인물임)이 表訓으로부터 皇福寺에서 三本定을 배운 것이 수록되어 있고,⁵⁰⁾ 『釋華嚴旨歸章圓通鈔』 卷下에는 신림이 불국사에서 법회를 주관하였다고 되어 있다.⁵¹⁾ 그리고 『佛國寺古今創記』에는 文武王이 그의 치세 10년(670)에 無說殿을 창건하고, 義湘과 그의 제자인 悟眞·表訓 등 華嚴10大德⁵²⁾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⁵³⁾

47) 신라시대에는 華嚴宗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華嚴業이라고 하였다.

文明大, 「佛國寺 佛教美術의 綜合的 研究-佛國寺 佛教建築美術論」, 『講座美術史』, 제12호, 14쪽, 1999

48) 全海住, 『義湘華嚴思想史 研究』, 民族社, 서울, 106쪽, 1994

49) 『三國遺事』 5, 「神咒第六(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大正藏』 49, 1018a)

50) 『十句章圓通記』 下, (『韓佛全』 4, 63b), “表訓大德在皇福寺時 大正角于 進於訓德房中白言 請學三本定焉”

51) 『釋華嚴旨歸章圓通鈔』 下, (『韓佛全』 4, 125c)

52) 『三國遺事』 4, 「義解第五(義湘傳教)」(『大正藏』 49, 1007a), “徒弟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等十大德爲領首. 皆亞聖也.” ; 全海住, 『義湘 華嚴思想史 研究』, 民族社, 서울, 98~106쪽, 1994 ; 鄭炳三, 『義相 華嚴思想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112~112쪽, 1998

53)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4쪽, 1983, “唐高宗咸亨元年庚午新羅文武王十年創無說殿講華嚴 文武王講經論爲任講義湘與弟子悟眞表訓等十大德相與講論而別勅表訓住佛國寺訓常往來天宮 出崔侯本傳及曉師行狀”

그러므로 불국사의 구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화엄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⁵⁴⁾

그러나 불국사가 국찰로 건축되고, 사명에서와 같이 불국을 지향했다면 불국사를 화엄종과 직결시키는 것은 편협한 이해가 된다. 즉, 화엄의 원융사상이 불국사의 건축을 통해서 구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화엄불국사라는 사명은 화엄종의 불국사라는 의미가 아닌 화엄사상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불국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주지하시피, 석가탑과 다보탑을 「견보탑품」과 관련된 고유명사로 볼 경우 이는 화엄종의 체계와는 충돌한다. 그러나 원융을 통한 비균제의 존재적 완성을 의미하는 화엄사상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이야말로 불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이라는 두 곳의 진입로를 가진 비대칭적 구조의 ‘불균형을 통한 균형[조화]’을 확보하고 있는 특이한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불국사가 국찰이며, 공교한 석축을 위해서 세대를 넘어서는 공사기간을 소모했다는 점에서⁵⁵⁾ 의도된 산물이라고 밖에는 말할

54) 불국사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法相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물적인 뚜렷한 입각점(예컨대 龍華殿과 같은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국사 가람배치에 대한 이해는 1차적으로 화엄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것이 보다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우리나라 불교의 특성상 학문적인 측면이 뚜렷하게 분기되지 못하고 혼재한다는 점에서 法相의 영향이 간접적인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55) 김대성은 불국사 공사를 시작한 후 24년 되는 해인 774년에 사망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완성하였다고 『삼국유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완성에 몇 년이 걸렸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다만 이종상(1799 ~ ?)의 <登佛國泛影樓>라는 시에 39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수 없다. 또한 아미타불 역시 『화엄경』에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화엄 안에서 아미타불이 불국사의 건축에서와 같이 독립된 진입로에 의한 독자 영역을 확보할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데 대해서는 생각해 볼만하다.⁵⁶⁾ 또한 불국사에 현존하고 있는 逆智拳印의 비로자나불상(국보 26호, 높이 1.77m)과 같은 경우 극락전의 아미타불(국보 27호, 높이 1.66m)과 크기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主尊이 아닌 附尊이었음이 분명하다.⁵⁷⁾ 이러한 불국사의 특징적인 가람배치는 불국사가 화엄종에 의거하고 있다기 보다는 화엄의 원용적인 ‘本体에 의지[性起]하는 존재의 전체적인 완성’⁵⁸⁾에 입각하여 가람배치를 현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국사는 화엄사상의 비획일적인 다양성에 대한 그 자체적인 완성의 관점에서 설

이중상의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불국사가 한 세대에 걸친 대공사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56) 불국사에서 극락전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 짓고 있는 것은 화엄사상의 일반론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는 義湘系 화엄만의 독특한 측면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된다(廉仲燮, [義湘系 華嚴思想과 極樂殿],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178~187쪽, 2009). 이는 浮石寺와 불국사의 무량수전과 극락전 영역에 공히 탑이 없는 것(高聽, <圓融國師碑銘>, “是寺者 義相師 遊方西華 傳柱智儼 後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儼云 一乘阿彌陀 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者 充滿諸法界 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 故口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儼師以此傳相師 相師傳法嗣 既于國師” ; 鄭炳三, 『義湘華嚴思想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서울, 179~189쪽, 1991)과 후에 개편된 것이기는 하지만 鳳停寺 역시 이중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상준·육선호, 『天燈山 鳳停寺 建築에 관한 研究』, 『東西大學校 論文集』, 제2호, 406쪽, 1996)을 통해서 단적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57)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6~7쪽, 2009

58) 까르마 C. C. 츠양, 이찬수 譯, 『華嚴哲學』, 經書院, 서울, 58~79쪽, 1998 ; 李道業, 『華嚴經思想 研究』, 民族社, 서울, 242~254쪽, 1998 ; 慧潤, 釋元旭 譯, 『華嚴法界觀法의 구조와 특징』, 『華嚴思想論』, 운주사, 서울, 293~306쪽, 1990 ; 全海住, 『華嚴 六相說 研究II』, 佛教學報, 제33호, 97~103쪽, 1996

계와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불국사의 핵심적 사명인 ‘불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불국사의 건축은 균제를 통한 완성이 아니라, ‘차별상 그 자체에서의 본질적인 완성’을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화엄사상 안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명칭을 무리 없이 수용해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인 연장선상에서 불국사라는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의 불균형성, 즉 동쪽의 무게편중과 서쪽의 넓은 공간은 다보탑의 화려함과 석가탑의 심플한 상승감을 통해서 이중의 조화를 연출해 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불국사의 비대칭적인 구조와 쌍탑의 비대칭성이 절묘하게 상호반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 중 또 다른 하나는 양 탑의 크기와 관련된 미묘한 차이이다. 석가탑과 같은 경우는 상륜부가 파손되어 實相寺 석탑을 통해서 복구했으므로 그 정확한 크기를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탑의 전체적인 비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석가탑이 다보탑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점에 관한 정도는 인지해 볼 수가 있다.⁵⁹⁾ 이는 화려함과 심플함에서 오는 인간의 시각적 착각에 대한 보정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치 바둑돌과 같은 경우도 흰색 돌이 검은색 돌보다 의도적으로 조금 작게 만들어지

59) 상륜부가 수리된 현존 석가탑의 높이는 총고가 10,758mm이며, 이 중 露盤 이상이 3,327mm이므로 노반까지의 높이는 7,431mm가 된다(박경식, 51쪽의 실측도면). 이에 반해서 다보탑은 상륜부가 일부 파손되어 있는 현재의 총고가 10,473mm이며, 이 중 露盤 이상이 1,923mm이므로 노반까지의 높이는 8,550mm이 된다(박경식, 63쪽의 실측도면). 즉, 현재 모습에 있어서 양 탑의 크기는 석가탑이 다보탑에 비해서 258mm 더 크지만, 露盤까지로 파악해 보면 반대로 다보탑이 1,119mm가 더 크게 된다. 이는 현재 상태와는 달리 본래 다보탑이 더 컸을 개연성을 상정해 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는 것과 같이 말이다. 심플함에서 오는 長身의 이미지와 화려함에서 오는 조금은 작게 느껴지는 부분에 관해서 건축자는 왜곡의 수정을 설계에서부터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화엄사상 안에서는 심플함과 화려함, 그리고 크고 작음 등의 모든 一切群像의 차별들이 본체적인 완성에 의해 더 이상 過不及이 없는 中道の 이상적인 시의적절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불국사의 건축적 미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석가탑과 다보탑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화엄사상과 석가·다보탑의 명칭과 관련된 충돌양상 간에는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2. 화엄과 법화의 이중구조와 석가·다보 쌍탑

불국사의 건축과 관련하여 『화엄경』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보되는 구조물은 ‘33계단의 靑雲橋·白雲橋’와 ‘須彌梵鐘閣’이 있다.⁶⁰⁾

이 중 첫째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그 계단수와 관련하여 須彌山頂인 仞利天(梵 Trāyastriṃśa)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⁶¹⁾ 그리고 이때의 도리천은 『화엄경』과 관련하여 석가모니 붓다가 正覺의 菩提道場을 여의지 않고서 도리천의 妙勝殿⁶²⁾에서 설법하

는 것을 통해서 이해된다.⁶³⁾ 즉, 화엄에 있어서 석가모니의 표현 의거처는 도리천인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의 도상이 降魔觸地印인 正覺의 手印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붓대를 모시는 壇이 須彌壇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단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도리천과 석가모니의 화엄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와 같은 관계적 인식은 둘째의 수미범종각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현재 泛影樓라는



<사진6> 수미범종각 하부의 수미산 상징구조물

편액이 걸려 있는 수미범종각은 본래의 명칭 및 수미범종각이 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불국사고금창기』에 수록되어 있다.⁶⁴⁾ 이를 통해서 본다면, 수미범종각 下部에 설치되어 있는 十字形의 입체감이 두드러져 8각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수미산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청운교·백운교와 수미범종각은 공히 대응전 영역을 수미산정의 도리천으로 비정하는 건축적 측면이라고 하겠다.⁶⁵⁾ 그리고 이는

60) 廉仲燮, [1] 화엄사상적 측면],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151~153쪽, 2009

61) 廉仲燮, 「佛國寺 進入 石造階段의 空間分割의 意味」, 建築歷史研究, 제53호, 64~65쪽, 2007 ;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 宗教研究, 제49집, 183~184쪽, 2007

62) 『花嚴經文義綱目』全1卷, (『大正藏』35, 496b), “第三會在須彌山頂帝釋宮中妙勝殿。” ; 『新譯華嚴經七處九會頌釋章』全1卷, (『大正藏』36, 712a), “第三會在須彌山頂帝釋宮中妙勝殿。”

63) 『大方廣佛華嚴經』16~18, 「昇須彌山頂品第十三~明法品第十八」(『大正藏』10, 80c~99a) ; 『大方廣佛華嚴經』7, 「佛昇須彌頂品第九~明法品第十四」(『大正藏』9, 441b~442a)

64)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47쪽, 1983, “須彌梵鐘閣 三間 … 須彌山形八角頂專 樓上可坐百八衆”

석가모니 붓다를 모시는 『화엄경』의 입각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간 안에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법화경』에 의한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람배치 구조에서 나타나 보이는 화엄과 법화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廉仲燮이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의 [2. 대웅전 영역의 이중적인 입각점]을 통해 고찰해 놓은 것이 있다.⁶⁵⁾ 이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사원구조는 『화엄경』과 관련하여서 ‘수미단’과 ‘항마촉지인’, 그리고 ‘화엄성중’이 있으며, 『법화경』과 관련해서는 ‘대웅전’이라는 편액과 ‘영산회상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사원구조 안에는 화엄과 법화가 이중적인 가치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엄과 법화는 중국불교 4家大乘 중 실천적인 禪宗이나, 타력적인 淨土宗과는 논리적 층차를 달리하는 나름의 완비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최상의 철학체계인 동시에 수행론이다. 이로 인하여 유교와 魏·晉 玄學을 대체하여 隋·唐시대에는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역할을 하기에까지 이른다.⁶⁷⁾ 이와 같은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불교의 사원건축은 인도불교의 須彌山 宇宙論⁶⁸⁾과 초

기의 중국궁전 건축의 범식 하에서 점차 사상적으로 화엄과 법화에 입각한 가치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겠다.⁶⁹⁾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화엄과 법화의 기반 위에 다시금 특징적인 유물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화엄과 관련된 청운교·백운교와 수미범종각이다. 그러나 이렇게 화엄적인 건축만이 존재한다면, 너무 화엄일변도로 치우치는 양상이 과생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본전 앞의 법화적인 석가탑과 다보탑은 역으로 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화엄과 법화의 양자에 의한 이중적인 영향은 비단 서로 분절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하나로 결합된 양태로도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靈山會上圖이다. 영산회상도와 같은 경우는 명칭에서부터 법화적인 영향 하에 설치된 석가모니 붓다에 대한 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⁷⁰⁾ 그러나 그 속에서 표현되는 석가모니상과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항마촉지인이라는 화엄과 관련된 수인으로 묘사된다. 이는 항마촉지인이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別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사상의 화해와 공존이 하나의 불교적 완성을 위해 融攝되는 측면이 동북아의 대승불교적인 가치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불국사 대웅전 영역 안에서 전개되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적 이질감은 동북아 대승불교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 석가모니와 같은 경우는 화엄과 법

65)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 宗敎研究, 제49집, 180~184쪽, 2007

66)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151~159쪽, 2009

67) 존 킹 페어뱅크, 中國史研究會 譯, 『新中國史』, 까치, 서울, 91~107쪽, 1994; 申採湜, 『東洋史概論』, 三英社, 356~360쪽, 2004

68) 廉仲燮,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관계성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6호, 65~68쪽, 2008

69)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31~88쪽, 2009

70) 최성규, 『삼과 초월의 미학-불화상징 바로 읽기』, 정우서적, 서울, 81~83쪽, 2006; 김정희, 『佛書-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돌베개, 서울, 31쪽, 2009

화를 一貫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엄과 법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석가모니에 대한 관점적 시각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 존재의 차이는 아니다. 이는 석가탑과 같은 경우 법화적인 입장에 있지만, 화엄의 인식인 도리천에 존재해도 하등 무방하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석가탑과 같은 경우는 영산회상도의 석가모니 붓다가 향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화엄과 법화에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다보탑이 왜 화엄적인 가치에서 파악되는 33천에 존재할 수 있는지만 해결하면 양자의 문제는 모두 풀리게 된다. 그런데 「견보탑품」에서 묘사되는 다보탑을 보게 되면, 이 존재는 대지에서 솟아 나와서 높은 허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¹⁾ 즉, 다보탑은 대지와 연계된 존재이지만, 실제 위치하고 있는 곳은 높은 허공인 것이다. 이는 도리천이 수미산이라는 대지에 연하여 있는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는 동시에, 신들의 세계로 인간계와는 분리된 공간이라는 점과 그 상징성이 일치한다.⁷²⁾ 즉, 양자는 공히 대지라는俗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聖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⁷³⁾ 또한 다보탑이 높은 하늘

71)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2b);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2b);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7a);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 34, 2009

72) 실제로 경전에는 탑의 크기가 4왕천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32b), “高至四天王宮。”; 『正法華經』 6, 「七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02c), “其蓋高顯至第一天。”; 『添品妙法蓮華經』 4, 「見寶塔品第十一」(『大正藏』 9, 167a), “高至四天王宮。”;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p. 34, 2009

73) 멀치아 엘리아테, 李東夏 譯, 『聖과 俗』, 학민사, 서울, 19~22쪽, 1997; 金勝惠 編, 『宗教學의 理解』, 분도출판사, 서울, 103쪽, 1995

에 떠 있다는 것은 분명 수미산정이라는 높은 신들의 세계와 연결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고유 명칭은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사상 배경에 있어서 전혀 충돌의 문제를 파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이상을 통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해법으로서의 타당성 접근에 관한 모색을 개진해 보았다.

제2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명칭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석가탑과 다보탑의 명칭은 공히 18C의 자료인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둘째, 석가탑의 사리장엄구에서 ‘無垢淨光塔’과 ‘西石塔’이라는 명칭이 확인되지만, 이 역시 고려의 특정시기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상은 결국 본고와 같은 연구접근을 초래하게 된다.

제3장을 통해서 먼저 석탑의 창조와 관련된 아사달의 비극에 대한 상징적 재해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결과로 그와 같은 설화 속에는 ‘佛國’ 완성을 통한 大會通의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우리는 인식해 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보탑과 석가탑의 건축적인 특수성에 관한 부분을 「견보탑품」의 의궤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불국사의 조영목적인 불국건설에는 삼국의 문화와 정신을 통일적으로 완성하려는 내포의미가 존재하며, 그러한 전개에 있어서 우리는 법화사상의 영산정도는 필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관해서 분명한 입각점을 확보해 보게 된다.

제4장을 통해서 불국건설에 있어서 특정한 종파적인 관점만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측면을 기초로 화엄과 법화가 상호 충돌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밝혀 보았다. 이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그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화엄사상 속에서 融會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석가·다보 양 탑의 명칭이 화엄사상과 충돌하는 부분은 해소된다. 특히 화엄과 법화가 불국사 안에서 각각의 사상적 층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수승한 완성을 현시하고 있다는 점은 ‘불국’이라는 사명의 뜻과 일치되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특징적인 명칭은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정립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타당성의 인지는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創記』의 기록이 단순히 18C의 기록만이 아닌 前說의 계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이는 이들 기록들에서 나타나 보이는 다른 명칭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확보한다고 하겠다.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 부여는 이를 통해서 ‘娑婆即淨土’를 이 세계 속에서 구현하려는 통일신라인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은 불교와 더불어 계속해서 현재 진행적이라고 하겠다. 즉,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은 통일신라 왕조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였던 동시에 백성들의 이상사회에 대한 염원을 온축하면서 전승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繼天, 『佛國寺事蹟』
2. 活庵東隱, 『佛國寺古今創記』
3. 崔致遠,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
4. 高聽, <圓融國師碑銘>
5. 이종상, <登佛國泛影樓>
6. 瞿曇僧伽提婆 譯, 『中阿含經』, 『大正藏』 1
7. 瞿曇僧伽提婆 譯, 『增壹阿含經』, 『大正藏』 2
8. 闍那崛多 譯, 『佛本行集經』, 『大正藏』 3
9. 竺法護 譯, 『正法華經』, 『大正藏』 9
10.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大正藏』 9
11. 佛馱跋陀羅 譯,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 9
12. 闍那崛多·達摩笈多 共譯, 『添品妙法蓮華經』, 『大正藏』 9
13. 實叉難陀 譯,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 10
14. 佛陀耶舍·竺佛念 等譯, 『四分律』, 『大正藏』 22
15. 陀跋陀羅·法顯 譯, 『摩訶僧祇律』, 『大正藏』 22
16. 迦多衍尼子, 玄奘 譯, 『阿毘達磨發智論』, 『大正藏』 26
17. 五百大阿羅漢, 玄奘 譯,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18. 世親 造, 玄奘 譯, 『阿毘達磨俱舍論』, 『大正藏』 29
19. 天台智者 說, 『妙法蓮華經文句』, 『大正藏』 34
20. 法藏, 『花嚴經文義綱目』, 『大正藏』 35
21. 澄觀, 『新譯華嚴經七處九會頌釋章』, 『大正藏』 36
22. 一然, 『三國遺事』, 『大正藏』 49
23. 玄奘, 辯機 撰, 『大唐西域記』, 『大正

- 藏』 51
24. 義天 集, 『圓宗文類』, 『大正藏』 58
25. 均如 說, 『十句章圓通記』, 『韓佛全』 4
26. 均如 說, 『釋華嚴旨歸章圓通鈔』, 『韓佛全』 4
27. 李承休, 김경수 譯註, 『帝王韻紀』, 亦樂, 서울, 1999
28. 韓國學文獻研究所, 『佛國寺誌(外)』, 亞細亞文化社, 서울, 1983
29.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上(總論篇)』, 悅話堂, 서울, 2010
30. 金勝惠 編, 『宗教學의 理解』, 분도출판사, 서울, 1995
31. 김정희, 『佛畫-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돌베개, 서울, 2009
32. 대구MBC, 『多寶塔』, 이른아침, 서울, 2004
33. 文明大, 『韓國佛教美術의 형식』, 한·언, 서울, 1997
34.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서울, 2003
35. 박경식, 『韓國의 石塔』, 학연문화사, 서울, 2008
36. 申採湜, 『東洋史概論』, 三英社, 서울, 2004
37. 유형식, 『人物로 본 獨逸美學』, 마이크로, 서울, 2003
38. 정형진, 『실크로드를 달려 온 新羅王族』, 일빛, 서울, 1990
39.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서울, 1992
40. 최성규, 『삶과 초월의 미학-불화상징 바로 읽기』, 정우서적, 서울, 2006
41. 황수영, 『佛國寺와 石窟庵』, 世宗大王記念事業會, 서울, 2000
42. 멀치아 엘리아데, 李東夏 譯, 『聖과 俗』, 학민사, 서울, 1997
43. 존 킹 페어뱅크, 中國史研究會 譯, 『新中國史』, 까치, 서울, 1994
44. 가르마 C. C. 즈앙, 이찬수 譯, 『華嚴哲學』, 經書院, 서울, 1998
45. 坪井俊映, 韓善光 譯, 『淨土教概論』, 弘法院, 서울, 1996
46. 石田茂作, 『佛教考古學論考4(佛塔篇)』, 思文閣出版, 京都, 1978
47. 植木雅俊 譯, 『(梵本)法華經 下』, 岩波書店, 東京, 2009
48. 佛教文化財研究所,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財]佛教文化財研究所, 서울, 2009
49. 佛教文化財研究所,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관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財]佛教文化財研究所, 서울, 2008
50. 金相鉉, 『新羅의 思想과 文化』, 一志社, 서울, 2003
51. 李道業, 『華嚴經思想 研究』, 民族社, 서울, 1998
52. 全海住, 『義湘華嚴思想史 研究』, 民族社, 서울, 1994
53. 鄭炳三, 『義相 華嚴思想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8
54. 金秀炫, 「佛國寺 多寶塔造成의 佛教思想의 意義」, 東國大 碩士學位論文, 서울, 1998
55.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서울, 2009
56. 추상훈, 「佛國寺 九品蓮池의 影池의 특징과 煙霧效果에 관한 研究」, 弘益大 碩士學位論文, 서울, 1997
57.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 1997
58. 裴珍達,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 - 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관련하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交手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서울, 2007
59. 최연식,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財]佛敎文化財研究所, 서울, 2009
- 慧潤, 釋元旭 譯, 「華嚴法界觀法の 구조와 특징」, 『華嚴思想論』, 운주사, 서울, 1990
60. 姜友邦,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제66호, 2001
61.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그 創建과 사상적 배경」, 『佛敎研究』, 제2집, 1986
62. 金聖雨, 「東아시아 佛寺의 初期 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3권, 3호, 통권 11호, 1987
63. 文明大, 「佛國寺 佛敎美術의 綜合的 研究-佛國寺 佛敎建築美術論」, 講座美術史, 제12호, 1999
64.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2」, 『傳統文化』, 제142호, 1984
65. 申賢淑, 「佛國寺의 伽藍配置와 佛國土觀」, 佛敎思想, 제28호, 1986
66. 成樂胄, 「歸納推理에 의한 石窟庵과 佛國寺 관련 문헌사료의 연구」, 『東岳美術史學』, 제2호, 2001
67. 廉仲燮, 「伽藍配置의 來源과 중국적 전개양상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69호, 2010
68. 廉仲燮,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관계성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6호, 2008
69.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 宗教研究, 제49집, 2007
70. 廉仲燮, 「佛國寺 進入 石造階段의 空間分割의 意味」, 建築歷史研究, 제53호, 2007
71. 李文基, 「崔致遠 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新羅文化, 제26집, 2005
72. 이상준·옥선호, 「天燈山 鳳停寺 建築에 관한 研究」, 東西大學校 論文集, 제2호, 1996
73. 全海住, 「華嚴 六相說 研究Ⅱ」, 『佛敎學報』, 제33호, 1996
74. 최미순, 「佛國寺 釋迦塔·多寶塔의 構成과 構造 分析 試論」, 佛敎美術史學, 제5집, 2007
- 접수(2010. 6. 15)
수정(1차: 2010. 8. 20)
게재확정(2010. 8. 23)

A Review on Nominal Validity of Seokgatab and Dabotab

Youm, Jung-Seop

(Department of Philosophy an instructor,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are almost generalized among the people along with Bulguksa the most well-known temple in Korea. But, despite this generalized situation,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have not secured the clear standpoint till now.

It is because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can be found only in the 18C documents like <Bulguksa History> and <Ancient and Present Bulguksa>. More complicatedly, in the record of the Goryeo sarira case found during the dismantling of Seokgatab, the name of Seokgatab was 'Mugujeonggwangtab' or 'Seoseoktab'.

This paper is to secure the nominal validity of Seokgatab and Dabotab to remove the confusion due to their names and to raise the efficiency of studies related with Bulguksa in the future. First, their names and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m were summarized in Chapter 2.

Based on this critical consciousness, Chapter 3 deals with the tragedy of Asadal related with the creation of the stone pagodas and its symbolic re-interpretation. In this process, we can see that there could be a viewpoint of the great comprehension in them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Buddhist Nation'. Then,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Seokgatab and Dabotab were analyzed in the ritual view point of <Gyeonbotabpum>.

Finally, in Chapter 4, on the basis that the viewpoint of one specific sect can not be predominantly applied in the construction of Buddhist land, it is held that Avatamsaka Idea and Saddharma-puṇḍarīka Idea can coexist without any conflict. It is shown in the fact that Seokgatab and Dabotab can make harmony together in the Avatamsaka Idea while keeping their names.

With these efforts, we can clearly see that the peculiar titles of Seokgatab and Dabotab can be said to secure sufficient validity.

Keywords : Dabotab, Seokgatab, Avatamsaka Idea, Saddharma-puṇḍarīka Idea, 「Gyeonbotabpum(見寶塔品)」, Prabhūtaratna-tathāgata, Spiritual Mount and Pure Land
